

SK케미칼, 바이오사업 6000억원 투입

울산에 신 성장분야 공장 건설 ... 2015년 완공 매출목표 1조1800억원

SK케미칼이 친환경 바이오 사업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.

SK케미칼(대표 김창근·최창원)은 울산공장 인근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신 성장분야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.

3월16일 울산시에 따르면, SK케미칼은 2011년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울산 남구 황성동 일대에 12만3000㎡ (해양 매립지 4만㎡ 포함)의 공장용지를 개발할 예정이다.

SK케미칼은 2015년 말까지 친환경 바이오 관련공장을 건설해 가동함으로써 1조1800억원의 매출과 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.

울산시는 SK케미칼이 공장을 차질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을 줄 방침으로, 울산시와 SK케미칼은 3월16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.

박맹우 시장은 "SK케미칼의 바이오 사업 투자가 회사의 신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울산의 친환경 산업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"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3/16>